

# 밍글

2018.03

photoshop, illustrator, aftereffect

—  
워라벨 실천에 도달하기 위해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밍글을 기획했습니다. 사용자의 일정관리는 물론 사내 팀원들의  
일정까지 공유받아 효율적으로 업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처리를 완벽하게 빠르게 끝낼 수 있게 금전적인 면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일의 능률을 더욱 더 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뉴미디어예술공모전 최우수상



preview



세상에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리고 미래의 계획이 있다. 또 자주 사용하는 시간관리 도구를 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 반면 시간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결정부터 내린 다음 고민을 하고, 미래 계획도 없다. 시간관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니 일과 삶 모두가 엉망인 경우가 생긴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고, ‘워라밸 시대’는 좋은 직장인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즘 기업들은 워라밸을 통해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사생활을 보장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하는 등 개인이 원하는 행복을 우선시하며 우수한 인재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진정한 워라밸은 개인의 ‘시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시에 퇴근하고 저녁 시간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는 개인도 확실한 시간 관리를 해 업무시간 동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업무를 할 때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메신저에서 해방되는 방법, 하고 싶지도 않은 야근을 거절하는 방법 등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일정관리 비법을 모두 담았다.

이 책은 저자가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며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던 모든 것들을 묶어놓은 시간관리 실천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마감 시간을 정하고,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등 구체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하루 11시간 근무 김대리, 실제 일한건 5시간 32분뿐

‘김 대리’가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 오전 9시 회사로 출근해 오후 7시 58분에 퇴근한다.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58분이지만 점심시간 등을 빼고 생산적으로 보낸 시간은 5시간 32분이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략 컨설팅 펌 맥킨지가 2016년 9개 기업 대리 4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다. 보고서는 “야근을 할수록 생산시간은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이 만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무시간에 바짝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기업과 임직원 모두 ‘윈윈’인 셈이다. 올 초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마트의 배광수 인사팀장은 “단축 근무 도입은 워라밸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 몰입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서로를 배려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최고를 지향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의미의 조직가치인 ‘4F’(Fair-올바른, Friendly-친근한, Fresh-신선한, Fun-즐거움)를 만들어 체질화했다. 유연하면서도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게 목표다. GS리테일은 직원과 가맹점 경영주, 파트너사, 고객 모두가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핫라인인 ‘CEO에게 말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2014년부터 ‘집중근무제도’를 시행해 본사 근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1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해 업무지시와 팀 회의, 자리이탈 등을 금지하고 오직 본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30분으로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기념일에는 오후 4시 퇴근할 수 있고,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13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되,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최대한 업무에 집중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박세현 / 우아한형제들 수석 인사지원실장 :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구성원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고요. 그 결과 연평균 7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숙박업 ‘격이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도 지난해부터 주35시간 근무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부터 화요일 오전 1시까지 근무 제공, 직원 근무 시 페, 연50만원 상당 숙박 포인트, 무제한 도서비스 자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에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인재 확보가 절실한 현재 입장에서 또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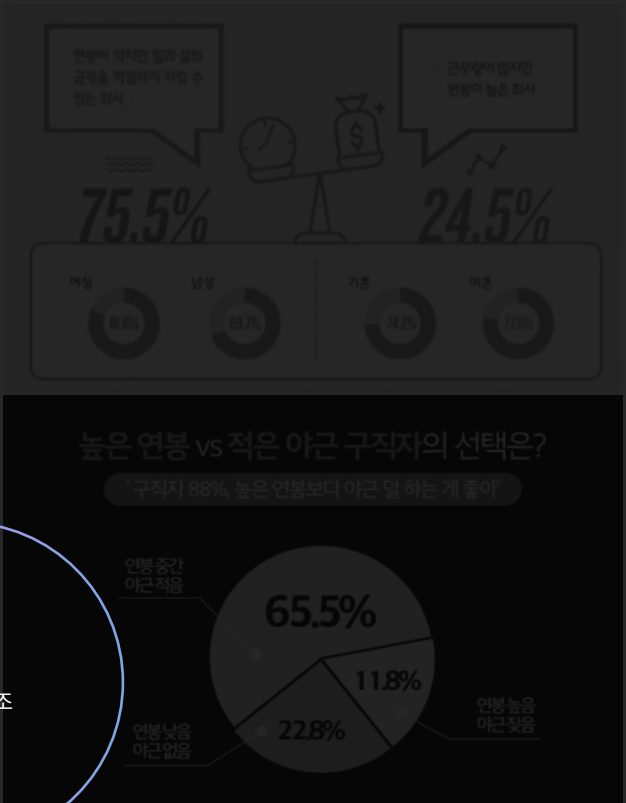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고려하기

##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는 밍글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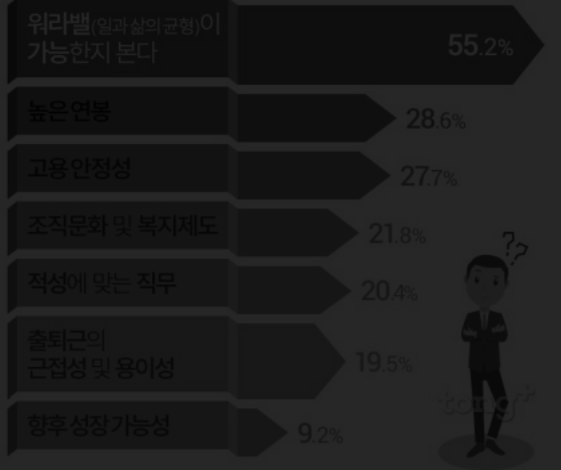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말은 시간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인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시간 낭비를 줄일뿐더러, 여가 시간에도 VOD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를 할 때와 같이 몰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한 뒤, 이를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또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이 언제 생산성이 가장 좋은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생산성이 좋은 사람은 하루 중 가장 어려운 작업을 일찍 시도해 오후 시간을 수월하게 보내도록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오전에 충분한 워밍업과 준비 작업을 통해 오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워라밸로 가는 길, 짧고 굵게 일하자”



Q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 design guide

메인컬러를 일과 삶의 융합을 표현한 중성적인 보라색 그라데이션 컬러로 선정하여 앱의 기획의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서브 컬러들은 그레이톤의 여러가지 무채색들을 사용하여 메인컬러를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font

위라벨엔

본문폰트 Noto S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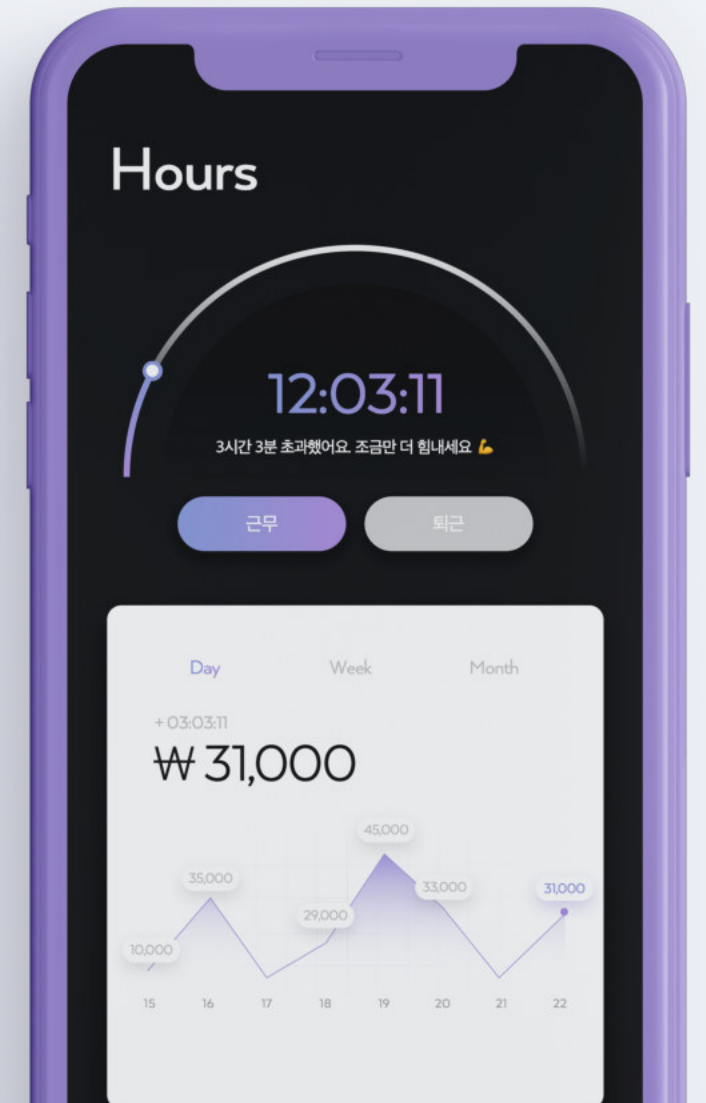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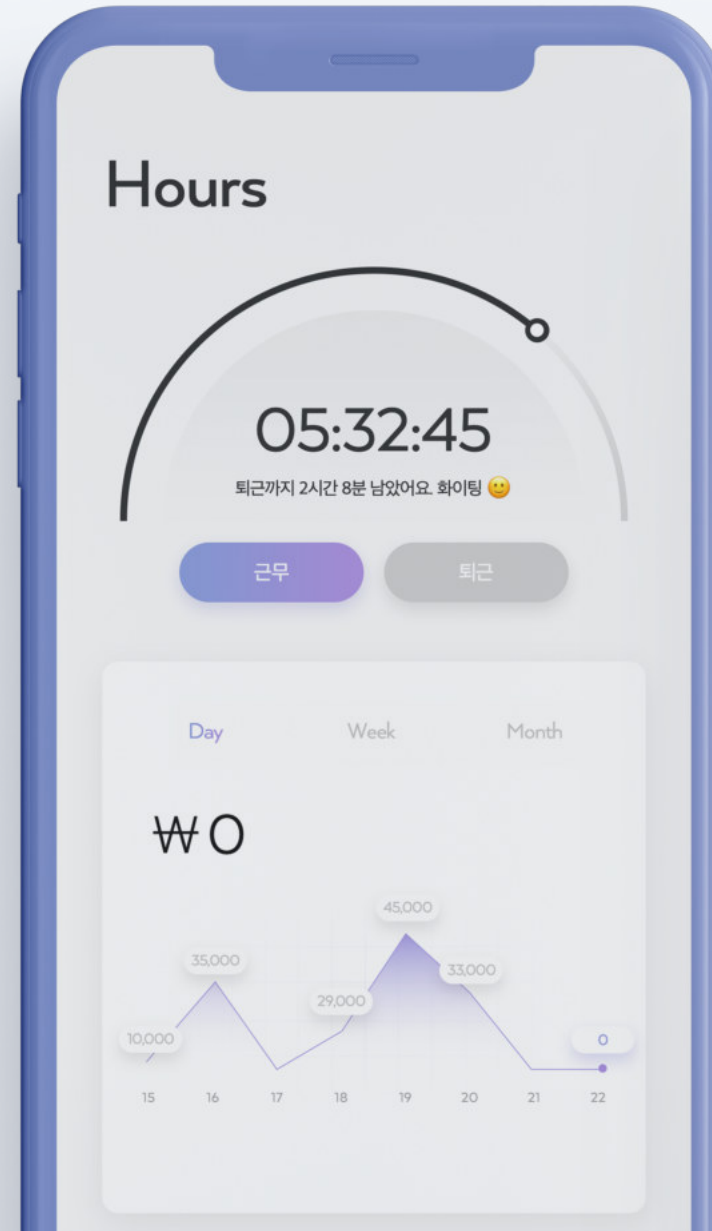
mingle !

타이틀 및 영문폰트 Architecta

## color



logo





# differentiation

일반적인 일정관리 어플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여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 Dooray! - 두레이

업무용 메일, 이슈 트래커, 캘린더 기능을 제공하는 두레이(Dooray!)는 프로젝트 관리와 협업환경을 지원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메신저까지 함께 이용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좋으나 다른 유사앱(메일, 캘린더)과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 근태 & 업무관리

위치기반의 근태관리 서비스로서 파견근로자나 자율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업무신청, 개인 근무표 작성, 개인 근무 집계 뿐 아니라 부하 직원의 근무시간과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팀과 업무를 관리하기 좋지만, 묶일 수 있는 기능까지 모두 세분화 돼있습니다.



## Tick Tick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to-do 리스트이자 업무 관리 어플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스케줄을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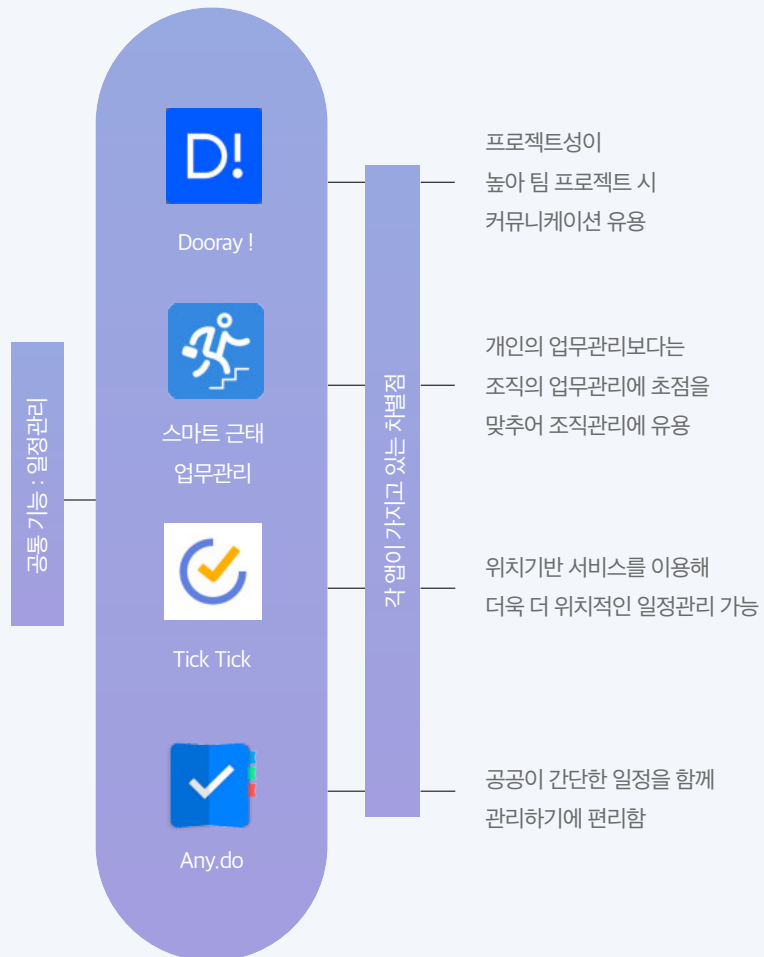
기능이 간단명료해 간편하고 사용성이 쉽지만 메인화면에서의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ny.do

할 일 목록, 캘린더, 알림과 목록의 콤보로 생산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해야할 업무들의 목록들을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직관적 UI를 가지고 있지만 실사를 사용해 자칫해서 앱이 가벼워보입니다.



design output

